

# 헝가리 거장 미클로시 안초의 작품세계로

광주시네마테크 특별전 26일-9월9일 광주극장

광주시네마테크는 오는 26일부터 9월9일까지 광주극장에서 미클로시 안초 특별전을 개최한다. 지난해 탄생 100주년을 맞은 헝가리 출신 위대한 시네아스트, 미클로시 안초의 작품 세계를 살펴볼 수 있는 자리다. 1921년 헝가리 바르에서 태어난 미클로시 안초는 생전 80여 편이 넘는 수많은 다큐멘터리와 극영화를 연출한 열정적인 예술가였다. 세계적인 명성에 비해 국내에 그의 작품이 소개되는 자리가 많지는 않았으나, 88올림픽 한국-헝가리 합작 공연 '노스토티(회귀)-불의 아해들'의 연출자로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다.



시대 특유 혁신적 영화 언어  
정치·사회·역사 성찰 주제 조화  
'칸타타' '적과 백' '붉은 시편' 등 6편 상영  
강연·시네토크도 마련 '기대'

이번 특별전에서는 '칸타타'(1963), '적과 백'(1967), '붉은시편'(1972) 등 안초의 작품 세계를 살펴볼 수 있는 6편의 작품이 상영된다. 1960-70년대 시기 만들어진 안초의 작품들은 현대 영화 예술가들에게 많은 영감을 줬다. 헝가리를 대표하는 또 다른 거장 벨라 타르는 본인의 영화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인물로 미클로시 안초를 지목하기도 했다. 그의 전성기 시대 작품은 특유의 혁신적인 영화 언어와 정치, 사회, 역사를 성찰하는 주제의식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칸타타'는 공산권영화로는 드물게 지식인의 위기의식을 담은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극영화 감독으로도 주목을 받기 시작한 그의 대표작이다. 소련 혁명 50주년을 기념해 소련과 헝가리가 합동 제작한 영화 '적과 백'은 1981년 소련 혁명군과 정부군의 참혹한 대립을 그려내고 있다. 1972년 칸영화제 감독상을 수상한 '붉은 시편'은 19세기 말 바르나 백작 영지에 모인 농부들이 빼앗긴 권리를 되찾기 위해 벌이는 투쟁 이야기다.

1919년 헝가리 평의회 공화국이 붕괴할 무렵을 배경으로 하는 '아 뉴스 데이'는 이전 안초 작품의 주요 촬영지였던 푸스타 초원을 벗어나 칼리 분지에서 촬영한 첫 번째 영화다. 영화 '대결'은 안초의 첫 번째 컬러 영화이자 이후 작품들의 주요 특색이 되는 요소인 노래와 춤을 처음으로 활용한 작품이다. '검거'는 헝가리의 전설적인 의적 '산도르 로자'의 이야기를 통해 과거 오스트리아 제국에 지배받던 역사를 다뤘으며, 헝가리 국내와 해외에서 두루 성공을 거둔 영화다. 특별전 기간 미클로시 안초의 영화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강연도 마련됐다. 오는 27일 영화 '적과 백' 상영 이후, 유진일 한국외대 헝가리어과 교수가 '유럽 속 아시아, 헝가리의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9월8일 '검거' 상영 후에는 유운성 영화평론가의 시네토크가 진행된다. 자세한 상영 일정은 광주극장 네이버 카페를 참고하면 된다. 문의 062-224-5858. /최명진 기자

## 천년 세월이 가는 것은 흐르는 물만 있을 뿐이니

장희구 박사 (468)  
漢詩 향기품은 변안시조

弘慶寺(홍경사)  
옥봉 백광훈

과거의 회상이 역사를 떠올리게 되고, 과거 회상이 오늘을 되돌아보게 한다. 그것은 어제라는 한 시점에 서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을 되돌아보며 내일을 설계하는 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일직선상에 놓고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관조하는 모습이 이어야 한다. 역사는 발전이기 때문이다. 가을 풀이 소복하게 우거진 전조의 절이었는데, 지금은 맑은 비석에는 선비의 글귀만 남아있다고 읊었던 시 한 수를 번안해 본다.

가을의 풀속에 전조의 절에서 비석에 남겨있는 학사의 문구에 유수는 천년을 가고 지는 해 구름보네.

秋草前朝寺 殘碑學士文  
秋草前朝寺 殘碑學士文  
추초전조사 잔비학사문  
千年有流水 落日見歸雲  
천년유류수 낙일견귀운



있고, 최종이 란 대학자의 손때가 묻어 있는 비문이 란 선경의 시 낭(詩曠)을

천년 세월이 가는 것은 흐르는 물만 있을 뿐이니(弘慶寺)로 제목을 붙여 본 오언절구다.

작가는 옥봉(玉峰) 백광훈(白光勳:1537-1582)으로 조선 중기의 시인이다. 36세인 1572년(선조 5) 명나라 사신이 오자 노수신의 천거로 백의제술관이 되어 시제와 서필로써 사신을 감탄하게 했던 인물이다.

위 한시 원문을 의역하면 '가을 풀이 소복하게 우거진 전조의 절이었는데 / 지금은 맑은 비석에는 선비의 글귀만 남아있구나 // 천년 세월이 가는 것은 흐르는 물만 있을 뿐이니 / 지는 해에 떠가는 구름만을 바라본다네'라는 시상이다.

위 시제는 '홍경사에서'로 번역된다. 홍경사는 충남 천안시 성환읍 대흥리에 있었던 봉선홍경사사적갈비(奉先弘慶寺事蹟碣碑)에 잘 나와 있는 바와 같이 1026년에 최충이 지었던 봉선홍경사기를 새긴 비가 국보 제7호로 지정된 문화재임을 알고 나면, 시인의 시상은 족적의 그림자를 밟고 있어 보인다.

시인은 전조인 고려시대부터 이 절이

매만지고 있다. 가을 풀이 소복하게 우거진 전조의 절이었는데, 지금은 맑은 비석에는 선비의 글귀만 남아있다는 시상이다. 선비의 글은 두 말할 것도 없이 해동 공자로 알려진 대학자를 뜻하고 있다.

화자는 시적인 심회는 이젠 다소 엉뚱한 방향으로 회전시키는 멋을 부린다. 천년 세월이 가는 것은 흐르는 물만 있을 뿐이니, 하염없이 지는 해에 떠가는 구름만을 바라본다고 했다. 세월은 무심히 흘러가지만, 눈으로는 볼 수 없고, 오직 예나 지금이나 흐르는 것은 물만이 있을 뿐이라고 했다. 시인의 푸념 한 마디는 이런 사실을 아는 이는 하늘뿐이라는 허탈이다.

### \*한자와 어구

秋草: 가을 풀, 前朝寺: 전 조정의 절, 곧 여기서 고려를 뜻함. 殘碑: 오래된 남은 비석. 學士文: 학사의 비문. 선비의 글. 여기서 최충의 글씨를 뜻함. // 千年: 천년. 有流水: 유수만이 있다. 落日: 해가 떨어지다. 見: 보다. 歸雲: '시인은 구름이 돌아가는 것'을 보다는 뜻임. <시조시인·문학평론가(사)한국한문교육연구원 이사장>

## "ACC 라이브러리파크 더 알차게 즐기세요"

체험·강연 등 5종 19차례 운영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소장 자료 가치를 발견하고 체험하며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시민을 찾아간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24일부터 12월까지 라이브러리파크 곳곳에서 '2022 인조이(E njoy) 라이브러리파크!'를 운영한다. 이를 위해 ACC는 ▲자료 보관소(아카이브) 선순환 프로그램 ▲라이브러리파크 체험 프로그램 ▲정기 프로그램 3종 등 총 5종 프로그램을

19차례 진행한다. 먼저 '아카이브 앤 스테디-아카이브 선순환 프로그램'으로 하반기 프로그램의 시작을 알린다. 아시아 문화 기록·보관 소장 영상 콘텐츠 6종을 기반으로 아시아 문화와 한국 근현대를 깊이 있게 다루는 시간이다. 오는 9월21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라이브러리파크 강의실에서 열린다. 나경수 교수의 '지촌상과 남도놀이' 시작으로 '음악인류학자 정주'(김보희 교수), '한국 근대화를 기록한 작가의 작품과 시선'(한금현 학

예연구사), '남인도 쌀 수확 축제 풍갈 및 힌두 신화 세계관과 문화유산'(이재숙 교수), '한국 근대화 사진을 통한 골목문화'(박일구 사진작가) 강의가 잇따라 진행된다. 체험프로그램 '라이브러리파크 워크숍'은 11월까지 라이브러리파크 곳곳에서 만나볼 수 있다. 오는 28일 고도연 강사(광주블로그 교육센터)가 '인플루언서처럼: SNS 글쓰기' 수업을 진행하며 프로그램의 문을 연다. 이어 보자기 공예, 이미지 만들기, 그림책 낭독, 아크릴 드로잉, 수묵화, 스마트폰 사진촬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ACC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명진 기자

## 제23회 광주신세계미술제 대상에 정경자 작가

신진작가상 선민정... 26일 시상식

제23회 광주신세계미술제에서 정경자(48·사진) 작가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신진작가상에는 선민정(29·회화) 작가가 선정됐다. 광주신세계갤러리는 신망 있는 미술계 인사로 이뤄진 외부 심사위원회를 통해 총 61건의 개별 온라인 심사를 진행한 후, 최종 심사를 거쳐 1차 선정작가 8명을 선정했다. 이번 1차 선정작가전에는 노은영, 서영기, 선민정, 설박, 송석우, 유지원, 이세현, 정경자 작



가의 작품과 포트폴리오가 전시되고 있다. 올해 최종 수상 작가에게는 대상 1천만원과 신진작가상 5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내년 가을에는 별도의 창작지원금 지원을 통해 광주신세계갤러리 초대 개인전을 갖는다.

시상식은 오는 26일 오후 5시 광주신세계 본관 1층 갤러리에서 열리며, 1차 선정작가전은 오는 9월6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개최된다. /최명진 기자

그린알로에

#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